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국제리뷰

- Launch of the Equal Pay International Coalition (EPIC) in Asia and the Pacific

김난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PRESSFORPROGRESS, #metoo, 3.8 세계 여성의 날과 미국의 여성 행진

김은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San Diego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 여성이 진정으로 '빛나기' 위하여: 2018년 세계 여성의 날과 미투 운동 in 일본

오사와 기미코 | 오카야마 대학교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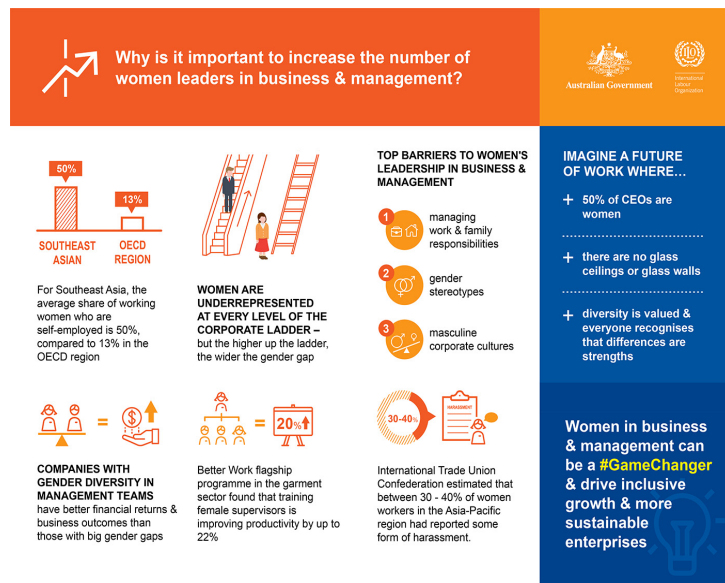
01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Launch of the Equal Pay International Coalition (EPIC) in Asia and the Pacific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8.1.31.-2.1 양일간 태국 방콕에서 ILO가 조직하고 호주 정부가 후원한 ‘여성과 일의 미래’라는 주제로 컨퍼런스¹⁾가 개최되었다. 컨퍼런스는 기후변화, 기술 진보, 비정규직, 인구 변화, 세계화, 이주민 증가 등이 ‘미래의 노동’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 능력만큼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여성노동의 잠재력이 계임을 변화시키는 요소로 인지하였다(이들간 SNS를 통하여 #gamechanger라는 해시태크로 컨퍼런스를 알렸다).



자료: http://www.ilo.org/global/about-the-ilo/multimedia/photo-slideshows/slideshows/rich/WCMS_617380_EN/lang-en/index.htm 2018.3.19. 인출

1) Regional Conference on Women and the Future of Work in Asia and the Pacific.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부, 노동조합, 기업, 학계 전문가들 모여 '여성과 일의 미래'에 대해 STEM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의 여성 진출, 일터 및 사회에서의 여성의 리더십 확대, 돌봄경제(care economy)의 관측은 일자리(decent jobs) 창출과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성, 포괄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기업에서의 여성 경영 활성화와 대표성 제고, 마지막으로 임금 격차 해소를 논의하였다.

컨퍼런스를 통해 임금 격차 해소(Closing the pay gap)를 위한 아태지역 EPIC(Equal Pay International Coalition) 발족은 본 컨퍼런스 개최 주된 목적이기도 하다.



자료: <http://www.ilo.org/global/topics/equality-and-discrimination/epic/lang-en/index.htm> 2018.3.19. 인출

EPIC은 ‘동등보수 국제연대(Equal Pay International Coalition)’의 약자로 2017년 9월 18일 ILO, UN Women, OECD의 공동주관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목표 8.5 달성을 위해 결성되었다. 2015년 9월 제70차 UN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경제·사회·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를 말한다. EPIC과 밀접한 목표 8.5의 내용은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남녀에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3월 제61차 회의에서 여성 지위위원회에 의해 시작된 챔피언 평등 플랫폼(Equal Pay Platform)은 EPIC 핵심 요소이다. 제61차 여성 지위위원회의에서 합의한 결론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여성의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실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질의 노동에 대해 동등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유엔이 작성한 보고서의 권고 사항에 따라 EPIC은 여성의 경제적 권한 부여(Women’s Economic Empowerment)에 대한 장벽 제거에 기여하고 견고하며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에 여성이 자유롭고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EPIC은 ILO, UN Women, OECD 연대 뿐만이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 정부 기관, 근로자 및 고용주 단체, 사회적 대화 기관 및 기타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협력한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한 인적구성도 EPIC의 취지와 일치한다. 지역별로 EPIC은 2018년 1월 파나마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EPIC에 이어 2018년 2월 방콕의 아시아태평양 EPIC이 두 번째이다.

ILO의 EPIC 런칭 자료에서는²⁾ 성별 임금 격차는 교육 및 직업 선택, 경험, 근무 시간, 경제 활동 부문, 돌보는 책임 및 기업의 규모를 포함한 노동 시장 요인에 의해 어느 수준까지 설명이 가능하나 그러나 관찰 가능한 노동자의 차이를 통제한 후에도 OECD 회원국의 성별 임금 격차의 절반 이상은 설명 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성 차별주의, 사회 관례 및 제도, 임금 투명성 및 차별의 부족이 남녀 간의 임금 차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대응 가운데에는 경력 기회 균등, 임금 투명성 강화, 남성과 여성 간 무급 노동의 동등한 분배, 의료 시설에 대한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투자 확대 등을 지적하고 있다.

2) OECD, Equal Pay International Coalition (EPIC) launch, New York, 18 September 2017.
ILO, <http://www.ilo.org/global/topics/equality-and-discrimination/epic/lang-en/index.htm>

연구에 따르면 동등한 가치의 노동을 위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보수 원칙이 널리 인정되었고 ILO 회원국 중 90 % 이상이 ILO의 1951년 평등 보수 협약 (No. 100)을 비준하였지만 실제 적용한 입증은 드문 것이 현실이다.

02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PRESSFORPROGRESS, #metoo,
3.8 세계 여성의 날과 미국의 여성 행진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San Diego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2018년 세계 여성의 날이 더 의미가 있는 이유

2018년 세계 여성의 날 주제는 #PressforProgress이다. 이 주제는 최근 미투(#metoo)와 타임즈업(#timesup, Time's up, 한 시대가 끝났다) 등과 같은 여성운동 이슈를 확장시키는 것 뿐 아니라 성평등을 위한 투쟁이 계속되기 위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세계 여성의 날 홈페이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성평등을 향한 진보를 이루기 위해 강력한 행동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¹⁾

#metoo투쟁은 2017년 10월부터로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시작되었다. 폭로 이후 여성들은 성희롱과 성폭력이 얼마나 일상적인 일인지를 알리기 위해 #metoo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metoo 운동은 2018년에 들어와 ‘#timesup’ 운동으로 진화했다. 2017년 미국 영화 산업 내 성범죄 추방 운동, 이른바 ‘#metoo’ 캠페인을 이끌었던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공동대응을 위한 단체를 결성하여, 캠페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들은 2018년 1월 1일자 뉴욕타임즈에 “자매들이여, 단결하자”(Dear Sisters, In Solidarity)라는 제목의 편지형식의 글을 통해 “남성 중심의 작업장에서 단지 승진하고 듣고 인정받기 위한 여성들의 투쟁은 끝나야 한다”며, ‘타임즈 업’의 출범을 공식화했다.²⁾ 이 타임즈 업에는 300명의 유명 배우, 작가, 감독, 프로듀서, 엔터테인먼트 경영자 등 쇼비즈니스 업계 종사자 뿐 아니라 전국의 블루칼라 여성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다. 초기 타임즈 업에 서명한 300명은 할리우드 배우 등의 자격으로 #metoo 운동

1) <https://www.internationalwomensday.com/> (검색일, 2018. 3. 8.)

2) <https://www.nytimes.com/2018/01/01/movies/times-up-hollywood-women-sexual-harassment.html>,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8/.../02women-letter.html> (검색일, 2018. 3. 9.)

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온 것과 달리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말할 수 없는 많은 여성들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들을 막아내야 했던 농업분야 여성농업인들, 승진이나 보직이동을 볼모로 성적 거래를 요구당한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 손님들에게 원하지 않는 터치를 당하면서도 웃음을 지어야 했던 식당 여성 종업원들, 불완전한 신분을 미끼로 침묵을 강요당한 이민 여성들 등 생계를 위해 비열하고 추악한 공격들을 감내했어야만 했던 모든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³⁾

올해 초 한국에도 소개된 바 있듯이 #timesup은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제정 운동도 겸한다. 성폭력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침묵을 강요하는 회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제정과 연연하게 주요 직위에 남녀 비율을 동등하게 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metoo와 #timesup운동은 여성들이 성폭력과 성희롱에 맞서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부를 통해 모은 1,300만 달러(한화 138억 원) 기금으로 블루칼라 여성들의 법률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성폭력을 방관하는 회사들을 처벌하는 등의 입법화 운동에 나서며 직장 내 성평등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⁴⁾

미국의 여성 가두 행진(Women's March)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는 미국의 모습은 한국과 다르다. 한국에서는 매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와 거리행진을 기획하는 것과 달리, 미국 내에서 세계 여성의 날 여성의 행진은 뉴욕, 시카고, LA와 같은 대도시에서만 소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같은 이유는 미국이 세계가 공동으로 기념하는 기념일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샌디에고주립대학교 여성학과 교수인 Doreen Mattingly는 미국의 오만함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⁵⁾ 세계 여성의 날 뿐 아니라 노동절도 미국에서는 5월 1일이 아니라 9월 3일에 기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1987년 미국 의회는 3월을 여성의 달로 지정하고 학교나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여성들의 성과를 재조명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⁶⁾ 그러나 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3월은 영양(nutrition)의 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 여성들의 거리행진과 같은 가두행진을 하지 않는 것일까. 미국 여성들에게도 가두 행진은 있다. 다만, 세계 여성의 날이 아닌 다른 날 한다. 미국 전역에

3) <https://www.timesupnow.com/> (검색일, 2018. 3. 8.)

4) [출처: 중앙일보, 2018. 1.2.] ‘#미투’ 이끈 할리우드 여성, ‘성범죄 추방’ 138억원 규모 단체 결성, <http://news.joins.com/article/22250622> (검색일, 2018. 3. 9.)

5) 2018. 3. 6. 인터뷰.

6) <http://www.nwhp.org/2018-theme-honorees/> (검색일, 2018. 3. 10.)

서 벌어진 여성의 가두 행진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좌절을 느끼고 이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모임에서 촉발하여 몇 십만 명의 여성들을 비롯하여 남성들도 동참하는 여성 행진이 있다. 어느 한 여성이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거리 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하였고, 이 SNS가 순식간에 온라인에 퍼지면서 확산되었다고 한다. 이 여성 행진은 단순히 공화당 출신 대통령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보여준 여성비하 발언과 성평등 의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정책들을 규탄하는 것으로써 그 규모나 주장하는 바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 21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날 워싱턴 D.C에서 모인 여성행진은 가히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만큼 대규모였으며,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였고 그 중 페미니스트 리더인 글로리아 스테이넴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역사적 여성행진 이후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여성의 힘을 조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⁷⁾



자료: <https://www.nytimes.com/2017/01/21/us/womens-march.html?action=click&contentCollection=U.S.&module=RelatedCoverage®ion=EndOfArticle&pgtype=article>에서 2018.03.08. 인출

【그림 1】 2017년 1월 21일,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여성의 행진 모습

미국 여성의 가두 행진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남성중심 권력과 특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집단행동이며, #metoo의 급부상과 맞물려 폭넓은 문화적 변혁을 위한 행동이다. 2018년 1월 20일 토요일, 뉴욕에서 20만 명 이상, LA에서 60만 명, 시카고에서 30만 명 이상이 여성 행진에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워싱턴, 필라델피아, 텍사스 오스틴에서

7) <https://www.youtube.com/watch?v=4ukHjzRCas> (검색일, 2018. 3. 10.)

는 수천 명이 참여하였으며,⁸⁾ 샌디에고에서도 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진이 있었다.

여성의 행진에서 주장한 바는 폭력의 종식, 재생산권의 보호, 성소수자권리, 노동자의 권리, 시민의 권리, 장애인 권리, 이민자 권리, 선주민 권리 그리고 환경 정의라는 큰 주제 하에,⁹⁾ 여성의 인권, 그리고 보편적 인권으로서 건강권, 사회적 정의와 환경,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지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¹⁰⁾ 그리고 이번 여성행진은 그동안 여성들의 주장을 올해 11월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표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First we MARCH, then we VOTE!”).



[샌디에고 유니언 트리뷴지, 2018.1.21.]

[여성 행진의 피켓 풋말들]

- “Trump’s Time’s up”
- “I will not be silent”
- “Fight like Girls”
- “Disappointed But Not Defeated”
- “#Me too”



[2018. 1. 20. LA 시내 여성 행진에 참여하여 연설하고 있는 여배우들, 왼쪽부터 스칼렛요한슨, 비올라데이비스, 나탈리포트만]

자료: (왼쪽) The San Diego Union Tribune, Sunday, January 21, 2018.

(오른쪽) <http://variety.com/2018/biz/news/los-angeles-womens-march-1202671290/>에서 2018.03.09. 인출)

[그림 2] 2018년 1월 20일, 여성 행진(Women’s March) 보도와 연설하는 여배우들

2018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을 바라보는 모든 한국여성들의 생각은, 한국사회가 진정 변화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metoo가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metoo는 한국사회의 문제만이 아닌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외침이다. 이는 여성들이 참정권 운동을 시작했을 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쟁취하려 했던 그 뜨거웠던 여성운동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8) <https://www.nytimes.com/2018/01/20/us/womens-march.html> (검색일, 2018. 3. 9.)

9) <https://womensmarchla.org/downloadable-flyers-graphics-posters/> (검색일, 2018. 3. 9.)

10) <https://womensmarchsd.org/calendar-1/2018/1/20/womens-march-january-20th-2018-hear-our-vote> (검색일, 2018. 3. 9.)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들의 참정권, 시민권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성평등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기능해왔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문명화된 모습을 한 그들만의 리그에서 여성들은 몇십 년, 아니 몇백 년간 여성의 몸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벌여온 것이다.

백여 년 전 여성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든 것이 동등한 참정권과 시민으로서의 권리였다면, 오늘을 사는 여성들에게는 여성의 몸을 지켜내야 한다는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정치적인 구호가 바로 #metoo인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자연재해나 뜻하지 않은 사고도 아닌, 직장과 학교에서 늘 마주하는 남성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현실은 우리가 얼마나 미개하고 모순된 사회에 살고 있는가를 직면하게 하는 씁쓸한 사실이다.

앞으로 세상은 #metoo가 있기 전과 후로 나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7년 1월, 역사적 여성행진 이후 New York Magazine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긴 글로리아 스테이넵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남성권력의 상징¹¹⁾)에 맞서 싸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면 됩니다.”¹²⁾

11) 필자 주

12) <http://time.com/4643958/gloria-steinem-womens-march/> (검색일, 2018. 3. 10.)

• 참고문헌 •

- 샌디에고주립대학교 Doreen Mattingly의 면담(2018.03.06.)
- 중앙일보(2018.01.02.) ‘#미투’ 이끈 할리우드 여성, ‘성범죄 추방’ 138억 원 규모 단체 결성.
<http://news.joins.com/article/22250622>에서 2018.03.09. 인출
- Buckley, C.(2018.01.01.) Powerful Hollywood Women Unveil Anti-Harassment Action Plan.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8/01/01/movies/times-up-hollywood-women-sexual-harassment.html>에서 2018.03.09. 인출
- Democracy Now!(2017.01.23.) Gloria Steinem at Women’s March on Washington – Full Speech.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4ukHjzRCas>에서 2018.03.10. 인출
- Hartocollis, A, and Alcindor, Y. (2017.01.21.) Women’s March Highlights as Huge Crowds Protest Trump: ‘We’re Not Going Away’.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7/01/21/us/womens-march.html?action=click&contentCollection=U.S.&module=RelatedCoverage®ion=EndOfArticle&pgtype=article>에서 2018.03.08. 인출
- International Women’s Day. <https://www.internationalwomensday.com/>에서 2018.03.08. 인출
- Lopez, R.(2018.01.20.) Viola Davis, Scarlett Johansson, Others Rally Thousands at Los Angeles Women’s March. <http://variety.com/2018/biz/news/los-angeles-womens-march-1202671290/>에서 2018.03.09. 인출
- National Women’s History Project. <http://www.nwhp.org/2018-theme-honorees/>에서 2018.03.10. 인출
- The New York Times(2018.01.20.) Women’s March 2018: Protesters Take to the Streets for the Second Straight Year.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8/01/20/us/womens-march.html>에서 2018.03.09. 인출
- The San Diego Union Tribune(2018.01.21.)
- Time’s Up. <https://www.timesupnow.com/>에서 2018.03.08. 인출
- Women’s March San Diego. <https://womensmarchla.org/downloadable-flyers-graphics-posters/>에서 2018.03.09. 인출
- _____ (2018.01.20.) 2nd Annual Women’s March – HEAR OUR VOTE. <https://womensmarchsd.org/calendar-1/2018/1/20/womens-march-january-20th-2018-hear-our-vote>에서 2018.03.09. 인출
-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8/.../02women-letter.html>에서 2018.03.09. 인출

03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여성이 진정으로 ‘빛나기’ 위하여: 2018년 세계 여성의 날과 미투 운동 in 일본

오사와 기미코 오카야마 대학교 부교수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일본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유엔여성기구(UN Women)는 올해 세계 여성의 날의 주제인 ‘때는 지금이다: 여성의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 활약하는 지방과 도시의 활동가들(“Time is Now: Rural and urban activists transforming women’s lives”)’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미투(#MeToo) 운동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전개되고 있는 성희롱과 성폭력 반대 운동, 여성의 권리 옹호 운동 등을 언급하고,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성희롱 문제와 여성에 대한 폭력, 성차별 철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2018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중략) 2018년 세계 여성의 날은 이 흐름을 더한층 발전시켜, 놓여온, 도시 등의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여성의 역량을 행동으로 옮길 기회입니다. 더불어 여성의 권리를 꾸준히 주장해온 활동가들의 활동을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고 밝히고 있다.¹⁾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어떠한 취지의 행사가 치루어졌을까? 다양한 규모의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탓에 이 지면에 전부를 옮기기란 어렵다. 다만, 인터넷 검색 결과, 상위에 오른 몇몇 대규모 행사를 소개하자면, ‘여성이 행복하게, 생기 있게 빛나기 위해’라는 주제 하에 여성의 자기계발을 강조하고, 여성이 즐길 수 있는 화려한 분위기의 행사가 두드러진다.

가령, 일본 최대의 화장품회사인 시세이도는 인터넷 매체인 BuzzFeed Japan과 손을 잡고 여성과 남성 모두 나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응원하는 토크쇼 “Happy Women’s Day 내일의 나에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이벤트에서는 다키가와 크리스텔 아나운서의 토크쇼와 이벤트의 심볼 컬러로 선정된 핑크 색상이 가지는 힘에 대한 시세이도 연구원의 강의

1) 유엔여성기구 일본 사무소 (<http://japan.unwomen.org/ja/news-and-events/in-focus/iwd2018>)

등이 열렸다. 시세이도는 UN Women과 계약을 체결한 일본 최초의 기업으로, 일본의 젠더 평등을 추진하는 리더로서 활약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금번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품고, 더욱더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누구나 활기차게 활약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역량 증진과 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HAPPY WOMAN실행위원회(사무국: 일반사단법인 우먼 이노베이션)는 '세계 여성의 날'을 일본의 새로운 문화 행사로 정착시켜 여성이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제2회 '세계 여성의 날 | HAPPY WOMAN FESTA 2018'을 도쿄 2곳, 오사카, 아이치, 미야기에서 동시 개최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 운동을 각지로 확대하기 위해 여성을 위한 라이프 디자인 세미나나 레스토랑, 호텔, 백화점 등이 공동으로 워크숍, 선물, 특별한 식사 등을 제공하는 등 여성이 즐길 수 있는 내용들로 꾸며져 있다.

한편, 보다 정면에서 일본의 성 격차와 여성 차별을 타개하고자 하는 세계 여성의 날 행사도 찾아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우먼즈 마치 도쿄 (Women's March Tokyo)'는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손에 손을 잡고 사회를 바꾸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는 목적 하에 치러졌다. 실행위원인 하마다 스미레(濱田 すみれ) 씨는, 이 행진은 "페미니즘운동의 유명한 슬로건인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The personal is political)'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거부감과 고통을 소리 높여 표현하고, 다른 여성들과 연대할 때, 성에 의한 차별로부터 해방되어, 여성과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나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또 미투 운동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의 운동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²⁾ 이날 행진에는 비 내리는 날씨에도 총 750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다만 역시 세계 여성의 날이 '우먼즈 마치 도쿄'가 전면에 내건 여성의 권리나 여성 차별과 같은 예전부터 이어져온(그리고 당연히 현재도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 더 나아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표방하지 않는 모양새로, 여성이 즐기고, 빛나기 위한 행사로 취급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러한 추세는 2012년에 출범한 2차 아베 내각이 내건 '여성의 활약'을 추진하는 움직임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느껴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에서는 미투 운동이 잠잠한 것 또한 현실이다.

미국의 할리우드가 진원지인 미투 운동은 일본에도 영향을 미쳐 유명 여성들을 포함한 수많은 여성들이 SNS 등을 통해 과거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백했다. 특히 파워 블로거이

2) 【인터뷰】 세계 여성의 날에 개최되는 '우먼즈 마치 도쿄'는 여성이 안고 있는 '울분'을 공유하는 장, 시네마카페 2018년 3월 7일 (<https://www.cinemacafe.net/article/2018/03/07/55767.html>)

자 작가인 이토 하루카(伊藤 春香, 하츄라는 필명으로 활동)는 예전에 근무했던 대형광고회사 텐쓰의 선배 직원 기시 유키(岸 勇希)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하면서 일본의 Twitter에서 미투 운동이 확대되는 계기로 이어졌다.³⁾ 이 흐름 속에서 특히 주목 받고 있는 인물은 미국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되기 수개월 전, 2015년 당시 TBS의 야마구치 노리유키(山口 敬之) 워싱턴 전 지국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공식 석상에서 고발한 언론인 이토 시오리(伊藤 詩織) 씨이다. 이 성폭행 사건은 야마구치 전 지국장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당시 경시청 형사부장이 직전에 체포를 취소하면서 국회에서까지 논쟁이 벌어졌다.⁴⁾ 이토 씨는 해외 언론 등에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일본의 미투 운동 그리고 여성 성폭력에 항의하는 운동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고, 동시에 여러 가지 격한 비방, 중상에 노출되어 있다. 가령, 걸레 혹은 창녀로 불리거나, 죽어라는 말을 듣거나, 또 입고 있는 옷에 대해 비난받거나, 진정한 일본인 여성이라면 그런 ‘수치스러운 짓’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라는 등의 모욕을 당하는 등 다른 여성들로부터도 스스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⁵⁾ 이토 씨는 기사에서 일본에서도 성범죄 관련 법 정비 등에서 조금씩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⁶⁾ “일본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 사회가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해 왔기 때문이다”고 주장한다.⁷⁾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빛나는 여성’, ‘노력하는 여성’을 미화해, 여성 개개인의 자구적 노력의 중요성과 유효성만을 강조하는 행태는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과 같은 성범죄의 존재, 뿌리 깊은 성차별의 실태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 받는 여성들의 존재를 묵살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차별 당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하기 보다는 노력해서 스스로 빛나면 된다, 틀림없이 빛날 수 있다”거나 또는 “이렇게 행복하게 활약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으니 일본에는 더 이상 여성차별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 따위의 담론을 구축하고 확대할 요량으로 기껏 세계 여성의 날을 사용해서야 되겠는가? 부지런히 목소리를 높이고, 연대하며,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는다.

3) ‘일본에서도 # Me Too 하츄 씨 피해 호소 후 급증’ 아사하신문디지털 2017년 12월 21일.

4) “Rape allegation against high-profile journalist, dropped by prosecutors last year, returns in civil suit.” The Japan Times, December 6, 2017. (<https://www.japantimes.co.jp/news/2017/12/06/national/crime-legal/rape-allegations-high-profile-journalist-dropped-prosecutors-last-year-return-civil-suit/>)

5) “Saying #Me Too in Japan.” POLITICO, January 4, 2018. (<https://www.politico.eu/article/metoo-sexual-assault-women-rights-japan/>)

6) 2017년, 110년 만에 형법이 개정되어 성범죄의 엄벌화가 추진되었다. 지금까지 최소 3년이던 징역형이 5년으로 확대되었고 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가 가능해졌다.

7) 그 후 올해 3월 3일 ‘이토 씨 등 몇몇 개인과 단체를 중심으로 유명 경제인과 대학 교수들이 연계’해 ‘#WeToo Japan’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성폭력 문제는 피해자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하고, 제3자의 적극적인 지지와 실천을 촉구하는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일본은 왜 묵살하나...성폭행 당한女기자 절규, 중앙일보 2018년 3월 8일) (<http://news.joins.com/article/22422595>)